

배포일시	2023. 7. 28(금)	배포매수	2매
담당부서	영업본부 영업개발처	배포부서	미래사업단 홍보팀 (032-745-718)
보도일시	2023. 7. 28(금) <7. 28(금) 조간>		

한·일 공항철도를 한 장의 승차권으로!

공항철도 직통열차-일본 게이세이전철 스카이라이너 최저가 결합 승차권 탄생
승차권 한 장으로...서울역에서 닛포리역(일본 도쿄)까지 공항철도 이용

- 공항철도(주)는 일본 게이세이전철과 함께 오는 8월 4일부터 양국의 공항철도인 '직통열차(한국)'와 '스카이라이너(일본)'를 한 장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통열차-스카이라이너 결합 승차권' 판매를 시작한다.
 - '스카이라이너'는 일본 나리타국제공항과 도쿄의 닛포리역, 우에노역을 연결하는 일본 게이세이전철에서 운행하는 급행열차이다.
- '직통열차-스카이라이너 결합 승차권'은 성인 편도 기준으로 약 26,000원(2,910엔)이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양국의 공항철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가는 엔화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
 - ※ 열차별 운임(성인 편도 기준) : 직통열차 9,500원, 스카이라이너 2,570엔(약 24,000원)
- 이 상품은 '와그(WAUG)'와 '노랑풍선 여행사'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받은 예약번호로 직통열차 온라인 예약발매시스템을 통해 승차권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발행하는 QR을 라이너권으로 현장에서 교환 후에 스카이라이너에 탑승할 수 있다.
- 임헌조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은 "공항철도(주)는 2014년에 일본 게이세이전철과의 마케팅 협약을 시작으로, 2018년 양사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제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여행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양사가 뜻을 모아 한 장의 승차권으로 양국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향후 대만, 태국 등 해외 공항철도 운영기관과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행객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미지 첨부

	<p>공항철도 × 게이세이전철 협업을 상징하는 이미지</p>
	<p>공항철도(주)는 지난 5월 16일에 일본 게이세이전철을 방문하여 제휴업무를 논의했다. (오른쪽 임헌조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왼쪽 코바야시 토시야 게이세이전철 사장)</p>

이 자료는 공항철도님 제공입니다.